

데스크 시각



송기동
사회2부장

“흑두루미가 깜짝 놀라 갑자기 날갯짓을 하면 벌써 7000개를 먹은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순천만 생태해설사인 강나루(56) 씨는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 떼가 외부인의 발길을 싫어한다면서 탐조대로 출발하기 전 특별히 당부했다. “자! 1분만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지난 4일 새벽 6시 순천만자연생태관. 서울과 인천·부산 등지에서 새벽 어둠을 뚫고 9개 팀 23명의 탐조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탐조객들이었다. 이들은 순천시가 처음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매주 일요일(오전 6~9시)에 운영하는 ‘겨울 철새 새벽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은펜칼럼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밝다’는 뜻의 한자 명(明)은 해(日)와 달(月)이 합해진 글자다. 낮과 밤을 밝히는 대상을 결합해 만들어진 글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창문을 뜻하는 ‘경’과 ‘달’이 합쳐진 글자였다고 한다. 즉, 옛사람들이 생각한 ‘밝음’이란 어두운 밤에 창문을 비추는 환한 달빛의 이미지였다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는 경험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 갑골문자의 생성 과정을 보면 밝음이 어둠의 대조적 이미지로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옛사람들의 삶에서 얻어진 문학적 감수성까지도 엿볼 수 있다. 단순히 빛을 밝히는 대상으로서의 해와 달이러면 햇빛을 반사하는 데 불과한 달을 해와 동가(同儕)로 보기가 어려

기 고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보내며 지난 12월22일부터 31일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연수를 다녀왔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국치’라 할 수 있을 만큼 크나 큰 대형사건 사고를 유난히 많이 겪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세월호 대참사는 온 국민은 물론 세계인까지 가슴 아프게 했던 부끄러운 해난 사고였다. 그 사건에서 드러난 총체적 난맥은 기성세대가 지켜야 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결국엔 인재라고 볼 수 있다. 또

천학(千鶴)의 노래를 들어라

김기현 기자

참가자들은 해설사의 인솔하에 최대한 새들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랜턴도 켜지 않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20여 분간 농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탐조대로 이동했다. 탐조대는 창동오리 식당을 이전한 자리에 세워졌는데 2층 실내에서 필드스코프나 쌍안경을 이용해 철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흑두루미 1천 마리 월동

탐조객들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차광막을 올린 후 필드스코프를 갯벌 쪽으로 향했다. 30여 분이 지나 시나브로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자, 대략 1~1.5km 이상 떨어진 갯벌에 가늘고 긴 다리의 흑두루미 무리가 시야에 들어왔다.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켜듯 이따금 날갯짓을 하던 흑두루미들은 오전 7시 30분께 날개를 활짝 펴고 먹이를 먹기 위해 들판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고배울 필드스코프를 이용해 흑두루미의 우아한 군무와 비행을 지켜보던 탐조객들의 입에서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순천만을 찾아 겨울을 나는 두루미류가 지난 연말 1000마리를 넘어서면서 순천시는 ‘천학(千鶴)의 도시’가 됐다. 12월

25일 모니터링 결과 흑두루미 96마리, 재두루미 35마리, 검은목두루미 4마리 등 3종류 1005마리의 두루미류가 관찰된 것이다. 이 가운데 흑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1만2000여 마리에 불과해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돼 있는 희귀조인데, 순천시의 시조(市鳥)이기도 하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지난 1996년 11월 70여 마리가 첫 관찰된 이후 2003년 138마리, 2007년 229마리, 2011년 525마리, 2013년 871마리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철새 안식 위해 지혜 모아야

서식 환경과 번식에 까다로운 흑두루미가 매년 순천만을 월동지로 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낙동강 유속도 등 국내 다른 지역 흑두루미 서식지 환경이 하구언 건설 등 대형 토목공사 등으로 인해 훼손된 반면 순천만 서식 환경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로 인해 과거 낙동강 지류를 따라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出水市)로 날아갔던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가 최근 서해안으로 바뀌면서 서산 천수만을 거쳐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순천시도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천만 갯벌과 맞닿은 인안돌(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의 전봇대 292개를 뽑아내는 한편 벼농사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전량 수매하는 등 많은 공력을 들인 것이다. 겨울철에는 수매한 쌀 중 일부를 다시 흑두루미의 먹이로 농로에 뿌려주기도 한다. 특히 겨울을 나는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인안돌에는 탐방객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순천만 보전은 순천시의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 다행히 지금까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연안습지’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유속도 사례에서 보듯이 개발 논리에 밀리면 철새 서식지의 환경은 한 순간에 변할 수 있다. 순천만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먼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도시’ 순천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탐조 프로그램을 마친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새벽이라 힘들었지만 흑두루미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먹이를 뿌려 주며 인간과 환경·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진짜 에코(Eco) 가족 여행이 됐다.”

社 說

여당의 문화전당 발목잡기 야당은 뭘 하나

하루속히 통과돼야 할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개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반대하는 여당도 그렇지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최대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예산 지원 문제 등을 결정하는 법이다. 박해자 의원은 광주시와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문화전당을 국가가 운영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여야와 정부 합의로 통과됐다.

이후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여당 지도부가 처리를 반대하면서 통화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더욱이 애초 국가기

가짜 기부금 영수증 남발한 종교·사회단체

세액 공제를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광주·전남지역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 단체는 기부금을 횡령 부패려 영수증을 끊어주는가 하면 아예 기부금액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발부해 주었다고 한다.

5일 국세청이 내놓은 ‘2014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단체는 모두 15곳(광주 2곳, 전남 13곳)으로, 기부금 총액만 103억38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곳이 사찰이었고 3곳은 장애인 및 환경단체로 나타났다.

대한불교 대승종 상은사의 경우 가짜 영수증 204건에 5억6100만 원, 대한선불교 계통종 정은사는 428건에 5억4700만 원 등 적발된 사찰 대부분이 역대 불법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광양시지회라는 단체는 최근 3년 사이 무려 13억4000만 원이 넘는 허위 영수

증을 발급해줬다니 ‘무늬만 시민단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짜 영수증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근로자들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면 연말 정산 때 근로자 과세 대상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5%를 공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종교단체 등의 입장에선 다소나마 기부금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기부금을 악용한 탈세이자 범법행위다. 같은 봉급 생활자로서 특정인들만이 허위 영수증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다면 수많은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폐단이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은 해당 근로자가 40%의 가산세를, 단체는 액수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탈세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해 금전적·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희생양(犧牲羊)은 ‘속죄를 위해 신에게 바치는 양’이다.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이나 동물’을 뜻하는데, 유대의 구약성서에서 비롯됐다.	
과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년 7월 10일을 ‘속죄의 날’로 정해 단식을 하고 속죄양(scapegoat)을 신에게 바쳤다. 제사장은 이날 광장에 모인 백성앞에 두 마리의 양을 끌고 나온 다. 한 마리를 골라 신에게 바친 제사장은 나머지 양 한 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유대 백성이 지지른 죄를 고백했다.	
희생양	속죄양과 희생양 또는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피해를 본다’
특별한 제의(祭儀)를 통해 유대 백성의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쓴 속죄양은 곧바로 거친 황야로 내쫓겼다. 요즘 쓰이는 ‘희생양’이라는 단어는 이 ‘속죄양’이 번역 과정에서 바뀐 것이다.	정벌하고 은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5년간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이 처참한 지경에 빠졌다. 백성을 사랑했던 탕왕은 제물로 바쳐지는 소처럼 자신이 직접 ‘희생’이 되어 기우제를 올리기로 했다. 탕왕은 자신의 머리를 깎고,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제단 위에 섰다. 왕의 정성에 감복한 천신은 큰 비를 내렸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동양에서도 죄를 용서받고자 하거나 무언가를 기원할 때 ‘희생(犧牲)’을 바쳤다. 유대인과는 달리 동양의 ‘희생 제의(祭儀)’에 쓰인 동물은 한자에 쓰인 것처럼 ‘소’였다. 동물인 ‘소’에 붙여졌던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통용된 것은 옛 중국의 탕왕 때문이다.	
‘서경(書經)’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다. “탕왕은 하나의 폭군 결왕을	/홍형기 경제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국내선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집 부 2200-649	문 화 생활 부 2200-661	광 권 마 케 터 팀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부 2200-642	예 료 매 체 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